

### 디지털 아트로 탄생한 불화의 변신

김용덕 '붓다의 외출' 10월 7일~ 16일 불일미술관서

엄숙한 명화 속 부처님이 화려한 외출을 했다. 컴퓨터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명화 30여점이 눈길을 끄는 김용덕의 '붓다의 외출'이 10월 7일~16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30여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미술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작가의 서원이 명화의 새로운 변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의 형상이 절과 박물관 등에서 벗어나 우리와 회노애락을 나누는 일상의 미술로 자리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함보다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한 컴퓨터 작업으로 명화를 표현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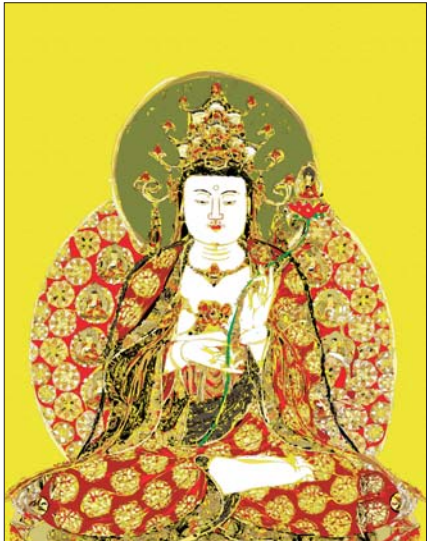
"일천불 품은 관음"은 관세음보살 가사에 1천 부처님을 그려 넣었다. 이는 강렬한 색깔과 단순한 터치를 통해 항상 우

리의 곁에 존재하는 관세음보살을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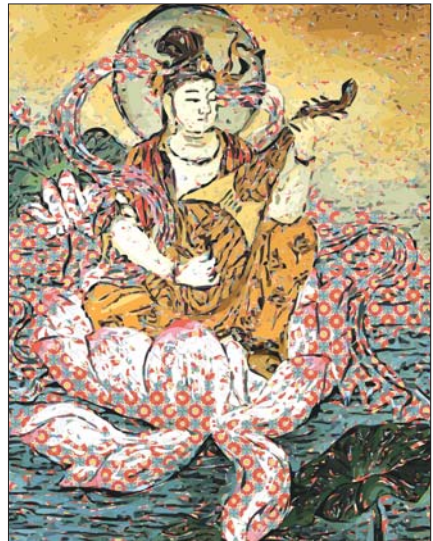
화려한 색깔의 고려수월관을 역시 컴퓨터 작업을 통해 빛어낸 작품이다. 훼손되고 빛바랜 불화를 작가의 상상력과 컴퓨터라는 신문물의 도구로 새롭게 부활시켜 재현했다. "명화가 양식화이기 때문에 형식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틀을 지키되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면 일반 명화보다 얼 굴 부분이 많이 단순화 되어있을 겁니다. 회화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작가는 불교를 소재로 한 전시회를 꾸준히 가질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반야심경을 해석한 일러스트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02)733-5322

정혜숙 기자



김용덕의 '붓다의 외출'이 10월 7일~ 16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품 왼쪽부터 '일천불을 품은 관음'과 '미륵보살'



### 마음의 고향 찾는 만다라의 향연

김영옥 개인전 10월 2일~9일 인사아트센터서

10년간 자기탐구를 거친 작가가 세상에 힐링의 메시지를 던진다. 김영옥(한국만다라심리연구 원장)의 제 6회 개인전 '심연에서 찾은 고향'이 10월 2일~9일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김 원장의 만다라는 한국 전통의 전각 새김을 이용한 독특한 회화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심연에서 떠오른 햇살, 심연의 만남, 심연의 등지 등 다양한 만다라 작품을 선보인다.

"만다라를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하염없이 빨려드는 몰입의 상태에 빠져서 나오는 확산의 에너지가 동시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없이 쏟아내고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오가며 자기

의 중심자리를 찾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만다라 마음치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한다. 이에 만다라드로잉회화를 모아놓은 <만다라드로잉명상1>을 출간했다. 만다라드로잉회화는 김 원장이 평소 새벽 명상을 통해 얻은 성찰의 글을 수집한 것이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김영옥 작가의 만다라 개인전이 인사아트센터에서 10월 2일부터 열린다.

# 마음 향한 칼 기와조각에 새기다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 '칼끝장엄'展...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박한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한 마음의 칼끝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칼이 크다고 큰 일 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작은 일 하는 게 아니죠. 칼끝이 가누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세속의 칼끝은 사과 배 같은 사물을 가르킬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도자의 칼끝은 마음을 향한 수행의 목표 지점을 향하고 있죠."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의 7번째 전시 '칼끝장엄'이 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열린다. 버려진 기와장을 옮겨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기와장을 닦고 그 위에다가 다시 조각을 하고 색깔을 입히는 작업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고된 작업들을 스님은 칼끝으로 이루어가는 수행의 과정에 비유한 것이다.

버려진 기와조각에 칼끝으로 잠입한 화엄만다라를 펼치는 스님은 이번 전시에는 기존 20여 점에 새로 작업한 40여 작품이 합쳐진 총 60여 점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종 안에서 좌선을 하는 듯한 수행자의 모습을 표현한 '잘 되었다'는 스님이 직접 쓴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작품이다. "제가 미술 작업을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잘 되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떠난 것이 잘 되었다는 뜻이죠. 이 작품은 곧 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독일에서도 전시한 바 있죠."

스님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기와에 글귀를 새겨 놓았는데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작업한 기와장 표면을 1~2밀리 정도 밀어 내고 그 위에 옷칠로 보강하고 찰흙죽으로 만든 접착제로 균열의 틈을 메우는 등 기초 작업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여공 스님의 '민달팽이 춤추다'

옷칠 서예 전각 등 배우며 20여년 기와조각에 매진 와편 전각 새 장르 개척 조사스님 어록 작품화 '서원'

"기와장을 건조시키려고 밖에 내놓고 외출을 했어요. 밤에 돌아와 기와장을 보니 굵은 민달팽이 하나가 올라가 있더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진액이 뿜어져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비상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뭔가 묘한 느낌이 있죠. 이것을 음각으로 새겨 미색의 선을 입혀 '민달팽이 춤추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스님은 와편전각을 위해 불화공부에서부터 시작해 옷칠 서예 전각 단청 천역염색 등 다양한 공부를 했고 이를 작품에 적용시켰다. '옴마니빳베훅'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양각 작품으로 불화가 병진 스님에게 불

화를 공부한 후 완성한 작품이다. "양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화의 기초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스님에게 공부부를 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기쁘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인도 여행을 갈 때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이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출가 전부터 시작해 20여년 기와조각을 작품화 하는 일에 천착해왔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해보고 싶다는 무심의 마음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출가전부터 시골에서 공방 운영을 하며 강좌도 열고 했어요. 그때부터 흙 작업을 좋아했는데 도자기 가마에 흙판을 빚어 작품을 만들어보았죠. 하지만 이렇게 만든 작품은 습기가 차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것이 라운딩이 된 기와조각이예요."

스님은 기와를 조각할 수 있는 칼을 찾

위해 경남 진주까지 내려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3년의 노력 끝에 와편전각이라는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기와조각은 20~30년 후면 다 사라질 거잖아요. 절 뒤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뿐인 기와 조각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어요?"

출가후 기와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나 기와장을 받게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여공 스님. 그렇게 다시 예술을 통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역대 스님들의 어록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경부·만공·경허·성철 스님 등의 어록들을 작품으로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한 분마다 50점씩 만들어 기획전을 여는 것이 제 평생의 원입니다." (010) 3097 1373

정혜숙 기자

bwhs@ryunbul.com



여공 스님의 '칼끝장엄'전이 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스님의 자화상을 표현한 '잘 되었다'

### 27회 불미전 수상작 한자리에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서... 46점 전시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전시가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작인 류종상의 금동준제보살좌상 등 46점의 당선작이 선보인다.

대상으로 선정된 류종상의 금동준제보살좌상은 그동안 시도된 바 없는 밀교 도상의 하나인 준제관음상을 청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조계종은 "복잡하기 그지

없는 관음상의 손과 지물, 보관과 영락 등의 세부 디테일을 정교하게 살리면서도 단아한 상호, 깔끔한 채색과 금금 등 고려시대의 전통 조각을 현대에 맞게 소화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수상작인 일오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은 보물 1612호로 지정된 법화사 대웅전불화를 그대로 재현했다. 전통적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전시가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최우수상작인 일오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

인 기법을 충실히 사용해 현대에 맞는 채색과 감각을 살려낸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또다른 최우수상 작품인 '대불정수능엄경변상도 목판' 역시 전주의 화암사본(1443년)을 복각한 작품이다.

국산 토종 은행나무를 6년간 건조시킨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세부의 조각에서 놀라운 정성과 기량이 잘 발휘되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조계종은 전시에 앞서 10월 1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정혜숙 기자

**두번째**

# 괘불재

掛佛齋

## 그리고 열한번째 가을산사음악회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괘불재 오후 1시

한국전통무용단 '秀' 특별공연 오후 5시

가을산사음악회 오후 6시 30분

- 사회자 : 권영찬(방송인)
- 출연진 : 김성환(탈러트), 김도향(가수), 도신(노래하는 스님), 김정연(가수), 박강수(통기타 가수), 쉐(한국전통무용단)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후원 : 부안군 | 광주·전남불교신문 | 광주BBS | 불교TV | 불교신문 | 현대불교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 제11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양력 10월 13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위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육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9월 9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3일 (음, 9월 9일)
- 3재 : 양력 10월 27일 (음, 9월 23일) • 5재 : 양력 11월 10일 (음, 10월 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4일 (음, 10월 22일)
- 기도 중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 위패비, 사탕, 과자, 분유(유유) 등
-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국민 353-24-0119-724 예금주 : 이순수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온 합창

02)3391-8523 / 011-9002-8523